

2023학년도
1학기
가톨릭관동대학교

춘계 학술논문 발표자료집

2023년 3월 29일(수) 오후 7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백제 중흥과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송유연 (역사교육과 3학년)

- 목 차 -

- I. 서 론 : 동아시아 문화교류, 왕릉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 II. 본 론 : 무령왕릉 발굴유물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한반도, 중국, 일본)
 1. 중국과의 교류, '지석과 오수전'을 중심으로
 2. 한반도 내의 교류, '금제관식과 금귀걸이, 금동리'를 중심으로
 - 1) 무령왕 금제관식
 - 2) 무령왕 금귀걸이
 - 3) 금동신발
 3. 일본과의 교류, '용봉문화환두대도와 청동거울'을 중심으로
 - 1) 용봉문화환두대도
 - 2) 청동거울
- III. 결 론 : 무령왕과 무령왕릉, 왜 의미 있게 다뤄지는가?

* 참고자료

[주제어] 무령왕릉, 웅진 시대, 오수전, 금제관식, 금귀걸이, 청동거울, 환두대도

I. 서론 : 동아시아 문화교류, 왕릉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고대 동북아시아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및 가야, 일본열도의 왜, 그리고 중국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이들 사이의 문화교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과 국내외 정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고구려는 주로 육로를 통해 선진적이었던 중국의 문화와 교류했다. 백제는 바다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접했고, 신라와 가야 및 왜는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고대 동아시아는 사신 왕래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개방된 고대’로 간주할 만큼 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¹⁾ 이러한 한·중·일 사이의 문화교류는 고대뿐만 아니라 교류의 물리적 거리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현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관점에서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은 국가 간 친선 관계 유지, 자국 문화 홍보, 우리 문화·예술 수준 향상 등이 있다. 그렇다면 고대의 문화교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의 국가가 단독으로 성립하고 발전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주변 나라 혹은 부족과 교섭 및 충돌을 반복하며 발전하는 단계를 거친다. 고대 한·중·일 교류의 주된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당시의 교류는 주로 조공과 책봉 관계였다는 것 역시 인지해야 한다. 대외적 방식으로 조공은 진공(進貢)과 회상(回賜)이라는 물물교환을 뜻했다. 이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경제적 보상 역시 문화교류의 목적에 포함되었을 것이다.²⁾ 즉, 고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문화적·경제적 발전과정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무령왕릉의 구조와 출토품을 통해 백제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와 대외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II. 본론 : 무령왕릉 발굴유물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한반도, 중국, 일본)

1971년 7월 6일,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에서 수로 공사 중 우연히 벽돌무덤이 발견된다. 1400년간 보존되어 있던 백제의 묘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한국일보에서는 무령왕릉의 발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무령왕릉은 발견 당시 무덤의 형태가 비교적 완전했으며, 출토품은 108종, 2906건에 달한다.³⁾ (...) 이번 발굴은 백제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해를 지극히 풍부하게 해주었으며, 백제학 연구의 새 장을 열어주었다. (...) 특히 중국 남조 시대에서 유래하는 많은 문화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어, 백제가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축이었음을 잘 드러내는 역사적 지위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⁴⁾

본론에서는 무령왕릉과 출토품을 통해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를 확인한다.

1) 고병익, (1996), <동아시아사의 傳統과 變容>, 문학과 지성사, 서문 참조.

2) “우리역사넷: 조공의 의미와 대중국 교섭의 전개”.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07_0040_0010_0010#ftid_252

3) 출토 유물은 모두 4,600여 점이다. 그중 12종 17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4) 주유흥,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p.2.

1. 중국의 교류, ‘지석과 오수전’을 중심으로

무령왕릉은 발견 당시의 뛰어난 보존 상태와 풍부한 출토품으로 유명하지만, 무령왕릉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지석⁵⁾이다. 이는 국내에서 인명이 적힌 최초의 삼국시대 왕의 무덤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⁶⁾ 학자들은 묘지 안에 놓여있던 지석을 통해서 해당 무덤이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p>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나이 62세 되는 계묘년 5월 7일 임진 날에 돌아가셔서(崩), 을사년 8월 12일 갑신 날에 이르러 대묘에 예를 갖추어 안장하고 이상과 같이 기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무령왕 지석⁷⁾</p>
<p>병오년 12월 백제국 왕대비가 천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서쪽 땅에서 상을 마치고 기유년 2월 12일 갑오 날에 다시 대묘로 옮겨서 장례를 지내며 이상과 같이 기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무령왕비 지석⁸⁾</p>

표 1. <무령왕릉 지석>

무령왕릉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양(梁)의 지배층 무덤 양식과 매우 흡사한 벽돌무덤이다. 웅진 시대 이전의 고분 양식은 고구려와 흡사한 적석총의 형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웅진 시대로 들어서며 적석총은 사라지게 된다. 고분은 석실봉토분(장방형)만 남았고 주로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벽돌무덤(전축분)은 위례성 시기에도 없었고, 사비 시기에도 보이지 않는 무덤 양식이다. 이 양식을 백제가 수용한 이유는 웅진 천도 이후 백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까지 백제 왕실은 고구려적인 인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구려에 의해 수도가 함락되어 공주로 내려온 이상 기존의 인식으로는 왕실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언가 획기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했고, 그 방안으로 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전축분이 축조된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굴 당시에 지석 위에는 오수(五銖)가 새겨진 쇠돈이 한 꾸러미 놓여있었다. 이는 지석 3면의 매지권과 관련이 있다. 이 오수전은 중국 양에서 만든 것으로 당시 실제로 유통하던 것이다. 이는 양과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오수전은 한 무제 때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화폐로, 5수(銖)의 동을 사용하여 주조한 동전이다. 그러다 남조 양 무제시기에는 철로 주조한 오수전을 발행했다.⁹⁾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5) 죽은 사람의 이름·생몰(生沒) 연월일·행적 및 무덤의 좌향(坐向) 등을 적어 무덤 앞에 묻는 돌.

6) “우리역사넷: 무령왕릉”.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100380&code=kc_age_10

7)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①>, 가람기획, p.385.

8)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①>, 가람기획, pp.385~386.

9) 송진, (2019). <고대 삼국과 중국 왕조의 사신 왕래와 물자 교류-무령왕릉 발견 오수전의 유입 경위 고찰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no.61, pp.102~103.

오수전 역시 남조의 철전이였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변경 출입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귀금속과 화폐 등의 재물은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했다. 따라서 무령왕릉에 매장된 오수전은 백제의 사신이 공식적으로 양으로부터 받아 가져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⁰⁾

지석을 통해 우리는 묘주가 백제의 무령왕과 무령왕비라는 것 외에도 백제 시대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무령왕 지석의 ‘영동대장군’은 양 무제에게 받은 2품 관제를 칭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령왕의 죽음을 일반적으로 제후의 죽음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흥(薨) 대신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붕(崩)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식 양식을 따르고 지석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관호를 표기했으나, 간지로 날짜를 기록하고 ‘붕’을 사용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백제와 중국 간의 대외관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백제와 중국 사이의 외교관계는 근초고왕 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 간의 교류를 백제 멸망 이후 당에 의해 전개된 것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다.

조공	봉책	견사	청구 및 허락	전쟁	회맹	계
65회	25회	14회	17회	7회	1회	129회

표 2. <백제의 대중관계(對中關係)>

백제의 대중관계에서 조공과 봉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다. 그렇다면 이 조공과 봉책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을까? 조공의 목적이 선진문화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 문화적인 관계보다 정치적 관계에 주목하여 종주국과 종속국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¹¹⁾ 또는 국가 발전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도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것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중관계’이다. 근초고왕 대부터 백제 멸망 이후까지, 백제는 중국 중국의 남북조시대와 수·당 시기를 거쳤다. 따라서 남북조시대와 수·당 시기를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남북조시대에 이루어진 조공과 봉책은 외교적 상호이해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백제의 대중관계는 한반도 내의 고구려·신라와의 역학관계를 중국과 연결됨으로서 유지하려고 한 목적이다. 무령왕릉의 묘지 양식과 지석, 오수전에서 확인되는 양과 백제의 밀접한 교류 흔적은 웅진 천도 이후 실추된 백제 왕권의 권위를 무령왕이 양과의 국제 관계를 통해 회복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양 무제에게서 받은 ‘영동대장군’이란 관제가 무령왕 권위의 바탕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¹²⁾ <표 2>에 제시된 대중관계 중 견사(遣使) 교류에서 웅진 시대 백제와 남북조시대에 이뤄진 것이 14회 중 13회를 차지하는데, 그중 6회가 무령왕과 성왕 대 이뤄졌다.¹³⁾ 무령왕과 성왕 부자는 모두 고구려와 항쟁하며 국력

10) 송진, (2019), <고대 삼국과 중국 왕조의 사신 왕래와 물자 교류-무령왕릉 발견 오수전의 유입 경로 고찰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no.61, p.97.

11) 전해중, (1966), <韓中朝貢關係考>, 《동양사연구》1, pp.10~27.

12) 무령왕 21년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고 양 무제에게 알리는 길에 신라의 사신이 동행하였는데, 신라는 이때야 비로소 양나라에 가 특산물을 바쳤다. 동북아시아 문화교류 중 백제를 매개로 해 교류하게 된 경우다.

회복에 주력했고, 무령왕은 재위 당시 국력을 회복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 대항책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밀접하고 활발하던 백제와 중국 남조 사이의 교류이다. 웅진 시기는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이고, 이것을 무령왕릉을 통해 알 수 있다.¹⁴⁾

또한 남조의 입장에서 백제와의 교류는 남북조시대의 혼란한 상황에서 외교 행위를 통해 북조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조시대의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혼란기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상호적 외교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제는 남조와 왕래가 잦았는데, 북조와의 관계는 왜 희박했을까? 그 원인은 지리상·정치상·경제문화상의 여러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백제는 고구려에 의해 육로를 통한 북조와의 교통로가 단절되었다. 반면 해상교통은 발달하여 백제에서 배를 타고 장강 입구 등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 중국은 남조와 북조가 대치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삼국이 정립하고 있었다. 472년 북위는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토벌해 달라는 백제 개로왕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백제는 남조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비록 남조의 무력을 빌리긴 어려웠으나 명분상의 지원은 얻을 수 있었다. 백제와 남조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양국의 경제·문화교류는 더욱 촉진되었다.¹⁵⁾

그러나 웅진 시기 백제의 문화가 중국 남조의 문화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은 아니다. 무령왕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으로 표현한 ‘붕(崩)’ 표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지식 위에 놓여있던 오수전은 무령왕이 죽어서 묻힐 땅을 사기 위한 것인데, 지하의 신에게 치르는 대금이다. 이러한 도교적 사상은 백제가 수용한 불교 외에도 도교가 백제인들의 인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2. 한반도 내 교류, ‘금제관식과 금귀걸이, 금동리’를 중심으로

무령왕릉 내에서 발견된 4,600여 점의 유물 중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금제관식과 금귀걸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백제 지역에서 도굴되지 않은 왕릉은 무령왕릉이 처음이었다. 무령왕릉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백제왕과 왕비는 금으로 만든 관을 쓰지 않았다고 여길 정도로 공주와 부여의 고분은 도굴된 상태였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왕과 왕비가 모자에 둘러싼 금판과 금제 관장식이 출토되었다.¹⁶⁾ 이 글에서는 금제관식과 금귀걸이를 중심으로 6세기 한반도의 대외관계와 교류사를 살펴볼 예정이다.

1) 무령왕 금제관식

무령왕의 금제관식은 국보 제154호로, 왕관을 꾸미는 금제 장식이다. 금제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메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팔메트란 종려나무의 잎을 부채

13) 주유흥,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p.129.

14) 주유흥,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p.128.

15) 주유흥,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p.130.

16)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①>, 가람기획, p.379.

꼴로 편 것 같은 동방 기원의 식물 문양으로, ‘인동문(忍冬文)’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14세기에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시작·변형된 팔메트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중국까지 퍼지게 되었다. 중국의 운강석굴을 비롯하여 육조(六朝)시대의 석굴사원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고분벽화나 금속공예품 등에 나타난다.¹⁷⁾ 이는 중국을



그림 1. 무령왕릉 금제관식

통해서 서방세계의 문화가 동북아시아 세계에 전파되었음을 상징한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시기에 무령왕이 국내적으로 통치를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양과 왜 등 대외 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시도하며 새 시대를 열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동시에, 무령왕의 금제관식은 팔메트와 연화문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무령왕의 관식으로 국제적인 팔메트와 연화문이 채택된 배경에는 무령왕 대부터 신장한 불교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무령왕의 금제관식 외에도 무령왕비의 금제관식에 표현된 연화(蓮花)를 통해 백제에 불교가 신장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¹⁸⁾ 남북조시대에서 연화와 팔메트는 생명, 재생, 광명, 그리고 불국토에서의 화생의 의미로 수용되었다.¹⁹⁾

팔메트와 연화문이 결합한 문양은 고구려와 백제 모두에게 전해졌는데, 그중 무령왕 금제관식은 지금까지 백제왕의 관식으로 발견된 유일한 예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화염의 형상을 한 무령왕의 금제관식으로 미루어보아 화염문²⁰⁾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염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은 동북아시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火)는 오행 중 하나이고, 불교에서는 화생(火生)으로 악마를 소멸시키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불이 신화적 상징을 띤다.²¹⁾ 그러나 팔메트와 연화문 형태는 중국 남북조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 화염 형상을 한 화염문의 예는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에 화염문이 결합된 형태가 전달된 경로가 고구려를 통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시된다. 대신 무령왕의 금제관식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화염 형상은 고구려 고분의 화염형 팔메트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정치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였으나,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는 꾸준히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7) “네이버 지식백과: 팔메트[palmette]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5261&cid=42642&categoryId=42642>

18) 연화문은 물이 가진 속성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연화의 생명 탄생의 개념이 시각적으로 도안화된 연화현병 모티프인데, 무령왕비의 관식은 이 연화현병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19) “네이버 지식백과: 무령왕 금제관식[武寧王金製冠飾]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1079&cid=46657&categoryId=46657>

20) 고대 건축·의장 등에 시문된 불꽃같이 삼각형상을 이룬 장식문양.

21) “네이버 지식백과: 화염문[火焰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9049&cid=46657&categoryId=46657>

2) 무령왕 금귀걸이

백제의 귀걸이는 신라와 가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출토 사례가 극히 적어 그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귀걸이 2점은 6세기경 백제뿐 아니라 삼국시대의 장신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해주고, 신라·가야·왜와의 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주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²²⁾



그림 2. 무령왕 금귀걸이

무령왕 금귀걸이는 가장자리를 따라 금 알갱이를 붙여 장식했는데 이를 ‘누금세공 기법’이라 한다. 누금세공은 신라에서 크게 성행한 세공기법인데, 귀고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백제와 가야에서도 누금세공 기법을 사용한 유물이 일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의 것에 비해 그 수가 적다. 그중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곱은옥의 금모에 나타난 것이 가장 섬세하고 대표적인 백제의 누금세공 유물이다. 곱은옥이 달린 귀걸이 장식에서 볼 수 있었던 구형의 장식은 삼국시대 귀걸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령왕 금귀걸이는 하나의 중심 고리에 여러 개의 귀걸이를 매단 형태인데, 무령왕릉 출토품 외에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우나 원통형의 중간 장식을 이용해 만드는 제작방식은 경주 황오리 34호분, 경주 황남동 106-3번지 1호묘, 대구 화원 성산고분, 일본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에서 유사한 예를 살필 수 있다.

신라와 백제의 중앙 지배층의 신분을 상징하는 세공품에서 제작기술과 디자인이 유사한 것을 통해 당시 신라와 백제 사이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옛 영토의 수복을 위해,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팽창을 위해 백제와 신라는 화친과 동맹을 되풀이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익히 알려진 나제동맹이다.²³⁾ 한성도읍기 말기에 조성된 이와 같은 신라와의 화친 분위기는 웅진 천도 이후에는 공수동맹, 결혼동맹 등으로 이어져 더욱 강화되었다. 신라와 빈번해진 교류의 징표는 주로 웅진 도읍기의 왕족 무덤인 공주 무령왕릉과 이와 비슷한 시기 경주의 왕묘급 무덤, 지방의 수장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귀걸이를 비롯한 무령왕릉계 장신구류 등은 신라의 세공기법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신라와의 활발한 교류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지역의 경우 백제 문물이 신라 도읍인 경주지역에서도 출토되지만, 신라의 변경, 즉 대가야 접경지역의 수장묘(首長墓)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와 직접적인 교류도 했으나 가야 수장들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도 빈번하게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⁴⁾ 이후 일본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도 백제 귀걸이가 발견되어 신라의 양식과 혼합된 형태가 일본열도까지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무령왕 금귀걸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981>

23) 홍보식, (2018), <나제동맹기 백제-신라의 문화교류>, 한국학논총, 49호, 초록 참조.

24) “공주 문화관광, 백제 웅진시대 신라와의 화친”, https://www.gongju.go.kr/tour/sub03_04_02_03.do

3) 금동신발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가 신던 9~10개의 쇠뭇이 박힌 금동신발도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은 장의(葬儀)나 특별한 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신으로, 금동리(金銅履)라고 칭하기도 한다. 금동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 고분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발이다. 쇠뭇이 박힌 신발 형태를 보고 이 신발이 말에 탄 장수가 적의 얼굴이나 어깨를 이 신발에 달린 쇠뭇으로 공격했으리라고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낙마했을 경우 쇠뭇이 땅에 박혀 거동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전투용 신발로는 보기 어렵고 죽은 사람에게 신기던 신발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의 금동제 못신과 쇠뭇신은 용도는 같았을 것이나 실제 출토된 신발 중 바닥의 못이 부식되거나 못이 빠진 흔적이 남아 있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⁵⁾ 금속제이기 때문에 무겁고 단단하여 비실용적이어서, 죽은 뒤 염습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짝으나 염습용 신발로만 보기에 지나치게 견고하고 정밀하여서 단순히 장의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만약 평상시에 사용했다면 특별한 제전(祭典)이나 의식 때 잠시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⁶⁾

백제의 금동리는 부속 부품, 문양 및 기법 등을 볼 때 고대 일본의 양식과 가장 유사한데, 특히 무령왕릉의 금동리는 후지노끼 고분의 것과 형태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일본과 백제의 밀접한 대외교류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라와 가야에서 발견된 금동리는 백제와 고구려와는 양식 면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금동리 유물의 핵심 의의는 삼국시대에 지배층의 무덤에 꺼묻거리로 묻었던 부장품으로서 사후세계에 대한 고대 동북아시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죽은 사람에게 신발을 신기는 이유는 묘주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지만, 신발 바닥에 긴 쇠뭇을 박은 것으로 보아 고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 독사나 독충이 우글거리는 험한 ‘황천길’을 걷게 된다는 사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못 박힌 신발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의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건 사후세계에 대한 한반도의 인식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려하고 무거운 금속제 형태가 지배자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복식(服飾)에 장식을 가한 영향이라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금동리는 우리나라 삼국 및 고대 일본의 대표적인 신발이나 그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아직 없다. 다만 출토품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유사성은 고대 여러 나라의 문화적 공유성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다.²⁸⁾

3. 일본과의 교류, ‘용봉문화두대도와 청동거울’을 중심으로

백제는 근초고왕 대부터 왜와 접촉을 시작했다. 백제 대왜관계(對倭關係)의 성격은 정치적·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25) 조효숙 외 2인, (2007), <백제 무령왕릉 출토 金銅履 수찰 식물 연구>, 복식57호, p.95.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동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674>

27)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①>, 가람기획, p.382.

28) 조효숙 외 2인, (2007), <백제 무령왕릉 출토 金銅履 수찰 식물 연구>, 복식57호, p.102.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외교 문서 및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결호(結好), 통호(通好), 불모(質)’ 등의 단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결호’와 ‘통호’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다만 ‘불모’의 경우에는 여러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질을 뜻하지만, 삼국시대 왜와 백제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읽고 인질 외교가 아니라 당시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백제가 주도적으로 취한 군사 외교라고 보기도 한다.²⁹⁾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백제인들의 문화 전수가 일본 고대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반도에서 왜로 이주한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학문과 불교, 선진기술 등을 전수했다. 왜는 고대국가 건설 이후에도 문화적 욕구를 주로 백제인들로부터 채워나갔다. 결론적으로 백제와 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화 전수자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중 백제 무령왕 대는 백제 역사상 왜국과 정치·경제적 친교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용봉문환두대도 등 백제 선진문물은 6세기 전반 왜국의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으로 정착해 갔다.³⁰⁾

1) 용봉문환두대도(龍鳳紋環頭大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철제무기 중에는 ‘용봉문환두대도’가 있다. 왕의 환두대도(環頭大刀)³¹⁾는 금·은·동을 이용하여 장식하고 제작했고 누금세공 기법을 비롯한 다양하고 뛰어난 금속세공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용과 봉황이 장식된 환두대도는 5세기 후반 이후의 삼국시대의 왕릉급 무덤에서만 한정적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³²⁾ 용봉문환두대도가 양나라에서 만들어져 하사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에서 용봉문환두대도가 출토된 사례가 없다는 점, 무령왕릉보다 앞선 사례가 한반도 내에서 확인되는 점, 제작 기법과 문양 등을 근거로 볼 때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³³⁾ 한반도의 용봉문환두대도는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 같은 형식의 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무령왕릉 대도는 일본 고분 시대 용봉문환두대도가 성행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제작에 기본적인 모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긴밀한 우호 관계에 있는 백제의 선진문물과 첨단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국의 입장에서 백제와의 친연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⁴⁾

29) “우리역사넷, 백제 대왜관계의 성격”.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06_0040_0030_0030#ftid_500

30) 박재용, (2022), <무령왕릉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동향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no.105, p.186.

31) 환두대도란 칼의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는 고리자루칼로서, 삼국시대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고리 안에는 여러가지 장식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칼을 사용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 그 가운데 용이 조각된 것은 가장 높은 신분에서 사용하였다. 주로 신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32) “네이버 지식백과, 환두대도 (문화원형백과 죽음의 전통의례와 상징세계, 2003,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1093&cid=46657&categoryId=46657>

33) 이한상, (2006), <무령왕릉의 환두대도>, 『무령왕릉 출토유물 분석보고서Ⅱ』, 국립공주박물관, pp.9~49.

34) 박재용, (2022), <무령왕릉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동향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백제는 신라와 나제동맹으로 화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야·왜와의 우호 관계도 지속시켜왔고 이때 이루어진 쌍방 간의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웅진에서 가야지역으로 전해진 무령왕릉계 환두대도를 들 수 있는 것이다.³⁵⁾

2) 청동거울

청동기 시대의 고대 한반도 국가는 청동거울을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여겨왔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은 여전히 그러한 의식이 6세기경에도 잔존하고 있었음을 상징한다. 특히 왕의 머리 부근에서 출토된 청동제 의자손수대경은 일본 고분의 출토품과 같은 거푸집을 사용해서 만든 동범경 혹은 동형경으로 알려지면서 무령왕 연간의 밀접한 한일 문화교류의 증거가 된다.³⁶⁾



그림 3. 의자손수대경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거울과 비슷한 청동거울이 일본 자하현(滋賀縣)의 삼상산하고분(三上山下古墳), 군마현(群馬縣), 관음산고분(觀音山古墳)에서 3점이 출토되었고, 백제에서 전해졌다는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거울은 백제-왜와의 교류 관계에 대한 근거이다. 백제와 일본의 왜국과 교류가 있었으며 백제와 같은 한반도의 문화를 왜에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무령왕릉의 청동거울은 백제의 왕권과 그 상징물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 고대 한반도 국가와 일본과의 밀접한 교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Ⅲ. 결 론 : 무령왕과 무령왕릉, 왜 의미 있게 다뤄지는가?

무령왕은 501년에 동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 수도를 옮긴 웅진 시대의 불안한 대내외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한 왕이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무령왕은 웅진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성왕과 함께 쇠락해가던 백제의 중흥을 도모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무령왕릉과 유적 내 출토품을 통해 무령왕 시기(6세기 초) 고대 동북아시아의 문화교류 양상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무령왕릉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백제를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주변 나라와 교섭 및 충돌을 반복하며 발전하는 단계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이 과정을 속에서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고대 동아시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짐작해 보고, 백제문화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써 무령왕릉을 탐구할 수 있다.

->, 한국고대사연구, no.105, p.186.

35) “공주 문화관광: 가야/왜와의 문화교류”, https://www.gongju.go.kr/tour/sub03_04_02_04.do

36) 박재용, (2022), <무령왕릉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동향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no.105, pp.189~190.

* 참고문헌

1. 서적

-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①>, 가람기획.

2. 논문

- 박재용. (2022). 무령왕릉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동향 -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105, 171-204.
- 노중국. (2021).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백제 -불교와 의약 교류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1.
- 김규동. (2021).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 -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 의례 복원-. 한국고대사연구, 104, 5-50.
- 주유흥.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1(40), 125-154.
- 조효숙, 이은진 and 전현실. (2007). 백제 무령왕릉 출토 金銅履 수차 직물 연구. 복식, 57(1).
- 송진, (2019). 고대 삼국과 중국 왕조의 사신 왕래와 물자 교류-무령왕릉 발견 오수전의 유입 경위 고찰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61, 97-121.

3. 사이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공주문화관광 <https://www.gongju.go.kr/tour/index.do>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gongju/>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678450617455>

4. 이미지

- 이미지 1. “네이버 지식백과: 무령왕 금제관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1079&cid=46657&categoryId=46657>
- 이미지 2. “네이버 지식백과: 무령왕 금귀걸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1085&cid=46657&categoryId=46657>
- 이미지 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동경”,
https://gongju.museum.go.kr/site/gongju/html/sub4/040101.html?mode=V&id=PS0100100400100067700000&cate_code=&cate_gubun=

성왕의 후기백제 중흥시도와 삼국관계 양상의 변화

최대환(역사교육과 3학년)

목차

I. 서론

1. 사비백제시대를 연 성왕

II. 본론

1. 대외적 교류로 문화적 진흥을 꾀한 성왕
2. 내정의 안정 도모로 후기백제의 중흥을 꾀한 성왕
3. 성왕, 영토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 고구려와의 대립을 통해 북쪽 영토를 회복하다
 - (2) 한강 하류 수복의 숙원을 달성하다
4. 나제동맹의 결렬과 후기백제 중흥이 실패로 돌아가다

III. 결론

1. 군주로서의 성왕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
2. 이후의 백제, 누란지위에 놓이다

※참고문헌 및 서적

I. 서론

1. 사비백제시대를 연 성왕

무령왕(501~523)사후, 왕위에 오르게 된 성왕(523~554)은 지리상 협착하였던 웅진(熊津)³⁷⁾에서 사비(泗沘)³⁸⁾로 거처를 옮기며 대내·대외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곧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비시대를 개창한 것이다. 성왕의 이러한 백제의 중흥 노력은 사비를 후기백제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간 것이다.

또한 나제동맹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한강 하류유역을 수복하여 백제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540~576)에 의해 한강 하류유역을 다시 잃게 되었고 이후에 있을 관산성(管山城)³⁹⁾ 전투에서 전사하였다(554).

성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보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고구려에 침탈당했던 영토, 특히 한강 하류유역 수복의 숙원을 달성한 결단력이 있는 왕이었음과 동시에 국가의 통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백제는 다시 한 번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던 것이다. 그 외에도 성왕은, 불교에 돈독한 신앙심을 가졌다. 그 일례로 사찰 창건과 불경 번역, 특히 불교문화의 교류에 앞장섰고, 이를 통해 백제가 나름 독특한 문화기반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⁴⁰⁾

이 글에서는 성왕의 주요 업적을 위주로 전개하면서 6세기 삼국관계의 변화양상까지 살펴보고, 성왕 이후 백제의 전개과정까지 설명할 것이다.

II. 본론

1. 대외적 교류로 문화적 진흥을 꾀한 성왕

먼저, 사비시대의 중국과의 교류 사실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유불통치이념의 구현이다. 먼저 사비에 도성을 축조하면서 시가지 중심지에 정림사(定林寺)⁴¹⁾를 창건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남조와의 교류, 특히 양(梁)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사상면의 진흥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524년(성왕 2)에 중국 남조 양 고조로부터 지절도독백제제군사 수동장군백제왕(持節都督百濟諸軍事 綏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 받았다.⁴²⁾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성왕은 대내·대외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당시 중국 쪽에 황제권 강화에 힘썼던 양 무제를 본받아, 귀족세력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송서(宋書)에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게 수동장군(綏東將軍)이라는 명칭이 없으므로 실제로 수동장군백제왕이라고 불렸는지는 불명확하다.

37)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이다.

38)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이다.

39)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이다.

40)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41) 성왕 16년(538)에 부여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건립된 사찰이다.

42)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2

541년(성왕 19)에 성왕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면서 표문을 올려 모시(毛詩) 박사과 열반(涅槃) 등의 의미를 풀이한 경전 및 기술자·화가 등을 백제에 보내줄 것을 양에게 요청하였고, 양은 이를 수락하였다.⁴³⁾

이와 같은 사료로 보았을 때, 성왕이 귀족층에 대한 원활한 통제와 그에 기인한 왕권강화를 유교적인 명분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왕의 불교사상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성왕은 인도에서 5부율(五部律)을 가지고 돌아온 겸익(謙益)⁴⁴⁾을 우대하여 고승들을 모아서 5부율을 번역시켰다. 그리고 담욱(曇旭)⁴⁵⁾·혜인 등이 저술한 율소(律疏) 36권에 비담신율서(毗曇新律序)를 써서, 백제의 신율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이는 불교 교단의 정비를 의미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율통치이념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달솔(達率)⁴⁶⁾ 노리사치계(怒利斯致契)⁴⁷⁾등을 왜에 파견을 보내어 석가불금동상 1구, 번개(幡蓋)약간 권 등을 보냄으로써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의·역박사 등의 전문가나 기술자들을 교대로 파견시켜 일본고대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다.

2. 내정의 안정 도모로 후기백제의 중흥을 꾀한 성왕

앞서 중국·왜와의 대외교류로 문화·사상적인 진흥을 꾀했던 성왕은, 안으로 대대적인 국가체제의 정비로 국력 강화에 힘썼다.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에 힘썼다.

538년(성왕 16) 봄에 도읍을 사비(泗比, 소부리<所夫里>라고도 한다,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⁴⁸⁾라 고쳤다고 한다.⁴⁹⁾

본래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은 땅이 협소하다. 이로 짐작했을 때, 수도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정치적·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성왕은 의도적으로 도읍을 부여로 옮기기도 하였다. 본래 부여는 백제 왕실의 모태로, 왕실의 성(姓)인 부여씨(夫餘氏)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이것은 성왕이 안정된 왕조의 면모를 가져 부여적인 전통을 강조함에 따라 왕실의 우월성을 보다 더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⁵⁰⁾

43)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19

44) 백제 성왕 초기에 인도 상가나사에서 범문과 율부를 전공한 승려이다.

45) 삼국시대 백제의 계율을 확립시킨 승려이다.

46) 백제시대의 관등으로 제 2품이다.

47) 백제 성왕시대 사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불교를 전수하였다.

48) 538년부터 660년까지 불린 백제의 별칭.

49)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16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왕이 부여족의 전통을 강조하며 도움을 옮기는 것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의도적인 계획 하에 사비천도가 단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 관제의 정비로 좌평(佐平)⁵¹⁾부터 극우(克虞)⁵²⁾에 이르는 16관등제와, 전내부(前內部)⁵³⁾ 등의 내관 12부와 사군부(司軍部)⁵⁴⁾ 등 외관 10부로 구성된 22부제가 정비되었다. 또 왕도의 통치조직으로 수도를 5부, 즉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로 구획하고, 그 밑에 5항(五巷)을 두었다.

물론 관등제의 경우에는 고이왕(234~286)⁵⁵⁾ 때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260년(고이왕 27) 2월,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⁶⁾

사료의 사실로 봤을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관등제는 복색, 관식, 대색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제도로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성왕은 위에서도 설명했듯, 22부제를 정비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⁵⁷⁾

지방 통치조직으로 종래의 담로제(擔魯制)⁵⁸⁾를 개편하여 전국을 중방·동방·서방·남방·북방의 5방(方)으로 나누고 그 밑에 군·성·현을 두었다.⁵⁹⁾

이것으로 성왕이 정치 운영에서 귀족회의체제의 정치적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왕권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를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3. 성왕, 영토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고구려와의 대립을 통해 북쪽 영토를 회복하다

먼저, 성왕이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고구려와 대립하였던 배경을 설명하겠다.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413~491)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빼앗긴 한강유역은 대중국 교통로의 요충지임과 동시에 백제인의 정신이 깃든 곳이어서 정책상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그렇게 문주왕(文周王, 475~477)이 개로왕을 이어 즉위하자마자 웅진(熊津)으로 다급히 천도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천도를 단행한 초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토 회복은 어려웠다. 그러나 성왕 때에 국력의 증진이 있게 되면서 고토 회복의 소

50) 『주서』권49 이역열전 상편 백제전

51) 백제시대의 관등으로 제 1품이다.

52) 백제시대의 관등으로 제 16품이다.

53) 백제시대의 관부.

54) 삼국시대 백제의 관서.

55) 백제의 제 8대 왕이다.

56) 『삼국사기』 권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27

57)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58) 백제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이다.

5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망을 이루어내기 시작한다.⁶⁰⁾

523년(성왕 1) 8월에 고구려의 군사가 패수⁶¹⁾에 이르자, 왕이 좌장⁶²⁾ 지충(志忠)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주어 출전하게 하니 그가 적을 물리쳤다.⁶³⁾

529년(성왕 7) 10월에 고구려 안장왕(安藏王)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북쪽 변경의 혈성을 함락시켰다. 이에 왕이 좌평 연모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곡⁶⁴⁾ 벌판에서 항전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사망자가 2천여 명이었다.⁶⁵⁾

사료의 사실로 봤을 때, 전쟁이 여의치 아니하였다. 특히 오곡원(五谷原)전투에서는 사망한 병사가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피해는 컸다고 볼 수 있다.

540년(성왕 18)에 장군 연희(燕會)에게 명령하여 고구려의 우산성(牛山城)⁶⁶⁾을 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⁶⁷⁾

550년(성왕 28)에 왕이 장군 달기(達己)를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⁶⁸⁾을 공격하게 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그 해 3월에는 고구려의 군사가 금현성⁶⁹⁾을 포위했다.

사료의 사실로 봤을 때, 사비로 도움을 옮긴 이후에도 고구려와의 대립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잦은 실패는 있었지만, 성왕의 고토 회복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⁷⁰⁾

(2) 한강 하류 수복의 숙원을 달성하다

앞서 성왕은 중국 · 왜 등과의 대외적 교류로 사상 ·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력을 차츰 신장시켜나갔다. 또한 대내적으로 신라 진흥왕(540~576)과의 협공으로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게 되었다.

551년(성왕 29)에 백제군을 중심으로 신라 · 가야군과 합세하여 연합군을 일으켰다.

60)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61) 지금의 대동강 일대이다.

62) 백제의 관직명이다.

63)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1

64) 지금의 황해도 서흥군이다.

65)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7

66)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이다.

67)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18

68) 지리적 미상.

69) 지금의 세종시 전의면과 전동면 금성산 일대로 추정.

70)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곧 복진하여 백제군이 먼저 고구려 남평양(南平壤)⁷¹⁾을 공격하고 격파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에 대해 기선제압에 성공한 백제는 결국 한강 하류의 6군을 회복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하였던 것이다.⁷²⁾ 이렇게 백제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강 하류유역 탈환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4. 나제동맹의 결렬과 후기백제 중흥이 실패로 돌아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한강 하류유역 회복의 여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의 한강유역은 삼국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교통과 대내외의 정치를 효율적으로 펼 수 있는 요지였다. 이에 신라 진흥왕은 나제동맹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한강 유역을 탈취하기 전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나제동맹이 점차 깨질 우려가 있어왔다.

550년(진흥왕 11)3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점령했다. 왕⁷³⁾은 양 국 군사가 피로한 틈을 이용하여 이찬⁷⁴⁾ 이사부에게 그들을 공격하게 하여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하였다. 군사 1천 명을 그 곳에 머물게 하여 지키게 하였다.⁷⁵⁾

사료에 있는 사실 중,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했다는 내용은 위에 서술한 도살성과 금현성이다. 고구려가 점령한 지역을 다시 빼앗은 것은 당시 고구려와 신라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나온 크고 작은 영토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 백제가 점령한 지역까지 빼앗아 점령했다는 것은 약 120여 년 동안 이어져왔던 백제와 신라 간의 동맹이 결렬될 수 있는 위험을 낳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백제가 신라와의 연합으로 한강 하류 6군을 회복했었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자, 당시 남과 북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에 처해있었던 고구려와 밀약을 맺은 뒤, 곧 군사를 돌이켜 백제의 수복지였던 한강 하류유역을 빼앗겼다.⁷⁶⁾

553년(성왕 31)에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⁷⁷⁾를 설치하였다.⁷⁸⁾

이로써 백제와 신라 양 국 간의 실질적인 동맹관계는 깨져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라의 배신으로 성왕은 매우 분개하여 비전파(非戰派)⁷⁹⁾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라정벌군을 일으켰다.

71) 고구려 때에 지금의 서울을 이르던 말이다.

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3) 신라의 진흥왕이다(재위 540~576).

74) 신라의 관직으로 제 2품이다.

75)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1

7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7) 지금의 이천, 광주, 한양 등지이다.

78)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31

79) 백제 성왕 때에, 신라와의 전투를 반대하던 귀족들을 일컫는 말이다.

554년(성왕 32)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보병과 기병 50명을 직접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⁸⁰⁾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난병들에 의해 살해되었다.⁸¹⁾

기록속의 구천은 오늘날 옥천으로, 관산성(管山城)전투에 관하여 기록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위 사료에서 쓰여진 신라의 복병에 관한 이야기는 신라본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⁸²⁾이 주병을 이끌고 와 이들과 교전하였는데,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⁸³⁾의 고간도도가 재빨리 공격해 백제왕을 죽였다. 이 때,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 대승을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좌평 4명과, 장병 2만 9천 6백 명을 참살하였다. 백제의 군사는 말 한 필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⁸⁴⁾

사료의 사실로 보아, 초기에 신라와의 싸움에서 우세를 보였던 성왕은 이 기세에 힘입어 구천 땅에 이르렀고, 곧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과 교전하였다. 즉 위 사료에 쓰인 복병은 김무력이 이끄는 주병이었던 것이고, 난병은 김무력을 도와 함께 싸웠던 도도였던 것이다. 성왕은 도도에 의해 전사하게 된 것이었다. 왕이 사망하자 백제군은 갈팡질팡하게 되었고, 결국 이 전투에서 4명의 좌평이 전사하였고, 군사들의 전사자수는 거의 3만에 육박하였다.⁸⁵⁾

이것으로 국내정치 정세가 꽤나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동성왕에서부터 성왕 때까지 확립되었던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는 다시 귀족 중심의 운영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였고, 약 1세기 이상 신라와 맺어졌던 나제동맹의 관계는 완전히 결렬되어 이후 백제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신라와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변모했던 것이다.

III. 결론

1. 군주로서의 성왕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

성왕은 사상적인 진흥을 꾀했던 군주였다.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기반으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유교를 받아들여 왕권강화 및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불교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일본에 전법(傳法)하여 일본 고대불교문화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까지 한 것이었다.

또한 비운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나제동맹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적이었고 할 수 있는 한강 하류유역 탈환 작업은 성왕의 탁월한 결단력을 눈여겨 볼 수

80) 옥천군,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군이다.

81)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32

82) 신라 진흥왕 때의 장군이다.

83) 신라의 상주 삼년군으로, 현재의 충청북도 보은이다.

84)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5

85)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한강 하류유역을 빼앗겼고, 이후 신라와의 전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성이 있었다.⁸⁶⁾

이 사료는 당시의 성왕이 고구려와 사투를 벌여 한강 하류유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인데, 성왕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

무령왕이 죽고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성왕이라 불렀다.⁸⁷⁾

이것으로 보아 성왕은 이상적인 군주의 면모까지 두루 갖추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의 성왕을 명왕(明王) 혹은 밝을 명(明)을 더해 그를 성명왕(聖明王)으로 표기하고 있다.

천도 · 지리에 통달해 그 이름이 사방에 퍼졌다.⁸⁸⁾

이와 같은 사실들로 당시 백제 성왕의 위세가 대내 · 대외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겠다.

2. 이후의 백제, 누란지위에 놓이다

누란지위(累卵之危)는 층층이 쌓아놓은 알과 같이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는 뜻으로, 백제를 예로 들어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성왕 이후 백제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성왕의 뒤를 이어 아들 창(昌)이 즉위했다.(위덕왕, 554~598) 위기에 놓인 백제를 다시 중흥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까지 보였다. 하지만 초반의 정치가 순탄치 아니했다. 위덕왕 즉위 이후 약 13년간은 관산성 전투 당시 신라와의 전쟁에 반대하였던 주화파 귀족들이 득세하여 위덕왕에게 전쟁 패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추궁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을 뒤이어 대내 · 대외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중흥을 이끄는 데에 성공하여 이 때의 안정적인 치세는 훗날의 의자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증자(海東曾子)라고 불렀다.⁸⁹⁾

86)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87)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성왕

88) 『일본서기』

89)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제 6 의자왕

사료의 사실로 보아, 해동(海東)은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 즉 백제를 뜻하며, 증자(曾子)는 남다르게 효심이 뛰어났던 공자의 제자 이름이었다. 이것으로 의자왕의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면 곧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원할히 돌보지 아니하였다.

656년(의자왕 16)에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좌평 성충이 적극 말렸더니, 왕이 노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히 간하려는 자가 없었다.⁹⁰⁾

의자왕의 이러한 사치와 탐락은 후에 백제의 멸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멸망요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657년(의자왕 17)에 왕의 서자⁹¹⁾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각각 식읍(食邑)⁹²⁾을 주었다.⁹³⁾

사료의 사실로 봤을 때, 추가된 41명의 좌평은 정식으로 임명된 관직이라기보다는 명예직의 성격에 가까웠다. 이것은 백제의 중앙관직체제, 나아가 국가조직 전반에 모순을 야기하는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었다.⁹⁴⁾

이것으로 말미암은 지배층의 내분은 백제를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 것이었다.

90)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제 6 의자왕 16

91) 첩 소생의 아들을 뜻한다.

92) 공신에게 제공하는 토지로, 조세를 개인이 받아쓰게 하던 고을이다.

93)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제 6 의자왕 17

94) 부여문화관광, 부여군청. 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참고문헌 및 서적

한국사통론

『삼국사기』(三國史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주서』(周書)

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59.》

노중국, <사비시대 백제지배체제의 변천> 《한우근박사정년기념학사논총, 지식산업사, 1981》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여문화관광.https://www.buyeo.go.kr/html/tour/culture/culture_03060301.html

백제 부흥 운동에 관한 연구
- <백강 전투>를 중심으로

과 목 명 : 춘계답사 규장각

학 과 : 역사교육과

학 번 : 20171678

이 름 : 이경환

제 출 일 : 2022년 3월 14일

목차

I. 서론.....	3
II. 본론	
1. 백제의 멸망.....	3
가.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전투	
나. 사비성 함락과 의자왕의 항복	
2. 백제 부흥 운동.....	6
가. 백제 부흥 운동 희망의 불씨	
나. 대외 관계	
3. 동아시아 최초 국제 해전.....	8
가. 백강 전투와 패배	
나. 주류성의 함락과 백제 부흥 운동의 몰락	
다. 이후 동향	
III. 결론.....	11
참고 문헌.....	11

I. 서론

백제 부흥 운동이란 백제 멸망 이후 4년간에 걸쳐 백제의 왕족 유신 유민들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 한 운동을 일컫는다.⁹⁵⁾

660년 신라 김유신의 5 만군은 육로로, 당나라 소정방의 10여만 군사는 해로를 통해 각각 백제를 공격해 왔다. 백제는 대응해 볼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당나라와 신라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의자왕이 항복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 복신, 흑치상지, 도침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661년 1월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옹립하고, 백제부흥운동을 꾀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663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싸움을 이어갔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토를 되찾았다. 이에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백제의 지도부는 왜에 파병을 요청한다. 이에 왜는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 파병을 결정한다. 그 규모는 군사 약 2만 7천명, 배 약 1천 척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동아시아 최초 국제 해전인 백강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육지의 백제 부흥군은 지도부의 내분으로 무너지게 되고 바다의 왜군은 해군의 경험이 많던 당나라 수군에 무너지게 되면서 사활을 걸었던 백제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백제의 멸망으로 시작하여 백제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본 후 동아시아 최초 국제 해전인 백강전투에서 어째서 왜는 전례에 없던 대규모 파병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백강 전투 이후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본론

1. 백제의 멸망

가.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전투

660년 당과 신라는 백제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660년 5월 26일 신라의 태종무열왕은 유신庾信, 진주眞珠, 천존天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왕경을 출발하여 6월 18일 남천정에 집결하였고, 당나라 군대는 3월 내주萊州를 출발하여 6월 21일 서해상의 덕물도에 도착하였다.⁹⁶⁾

나당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백제에서는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논의된 내용은 당군을 먼저 막을 것인가 아니면 신라군을 먼저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당나라 군대와 신라군 가운데 어느 편을 먼저 칠 것인가 하는 선후 문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당군을 어디에서 막아야 하며 신라군을 어디에서 저지하여야 하는가

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6)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41쪽.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신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의자와 신하들이 논의만 하는 동안 당군과 신라군은 백제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이로써 백제는 전략이나 대안도 없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맞게 되었다.

(가) 황산벌 전투

의자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어 계백에게 5,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신라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백제 장군 계백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르러 먼저 험한 곳을 점거하여 세 개의 영채를 세우고 (신라 군대를) 기다렸다. 유신 등은 군대를 세 길로 나누고 네 번 싸웠으나 불리하였다.⁹⁷⁾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백제군이 세 영채를 설치하고 방어에 나서자 신라군도 세 길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5만 신라군의 공격을 네 번씩이나 물리쳤다. 백제군이 이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계백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족까지 죽이면서 각오를 다진 뒤 황산벌로 향했다는 것에서 보이듯이 5,000명의 결사대의 결사 항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백제 군대가 대패하여 계백은 죽고 (신라는) 좌평 총상과 상영 등 20여명을 포로로 잡았다.⁹⁸⁾

그러자 신라에서는 젊은 화랑들의 희생을 본보기로 신라군의 사기를 높였고 이후 신라군의 총공격이 이어졌다. 이에 결국 백제군은 패배하여 계백은 전사하고 좌평 총상 등 20여명은 신라의 포로가 되었다.

(나) 기벌포 전투

이에 군사를 합하여 웅진강 어구를 막고 강가에 군대를 둔쳤다.⁹⁹⁾

덕물도에 도착한 소정방이 거느린 13만의 당군은 서해안으로 내려가 기벌포¹⁰⁰⁾에서 상륙을 시도하였다. 이에 백제는 웅진강 입구를 막아 대응하였다.

97)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98)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무열왕 7년조.

99) 『삼국사기』 권제42 열전 김유신전 중.

100) 기벌포, 즉 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에 금강설, 안성천 하구설, 동진강설 등이 있다. 종 금강으로 보는 해가 강세다.

소정방이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 산에 올라 진을 치고 백제군과 크게 싸웠다. (당의 수군은) 돛을 달아 바다를 덮고 서로 이어 이르렀다. 적군이 패배하여 죽은 자가 수천여 명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달아났다. (당의 수군은) 조수를 만나 올라가는데 배가 꼬리를 이어 강으로 들어갔다.¹⁰¹⁾

이 기사에서 보이듯 웅진강에 진을 친 백제군을 격파한 당군은 금강으로 들어와 사비성으로 진격했다.

나. 사비성 함락과 의자왕의 항복

당군이 사비성으로 진격해 오자 백제는 당나라 장군에게 철병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거나¹⁰²⁾ 푸짐한 음식을 당군에 보내거나, 의자왕의 서자인 궁躬이 좌평 여섯 사람과 함께 정방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¹⁰³⁾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난했다. 이때 의자왕의 탈출 경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에게 발각되기 쉬운 육로보다는 수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⁰⁴⁾

급박한 상황에 의자왕이 태자 효와 더불어 웅진성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사비성 안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등 내부 이탈로 사비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고 동요하는 민심은 견잡을 수 없었다. 이에 나·당 연합군은 백제의 도읍인 사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웅진성으로 피해 있던 의자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나·당 연합군에 갑작스럽게 항복했다고 알려졌다

의자왕은 18일에 친히 효 및 웅진방령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¹⁰⁵⁾

그 대장 이식이 또 의자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태자 융과 여러 성의 성주들도 모두 예를 표하였다.¹⁰⁶⁾

장군 이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하였다.¹⁰⁷⁾

이 기사들에 의하면 대장 이식이 의자왕을 거느리고 와 항복했다고 하고 의자왕보다는 이식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이식은 ‘대장大將’ 또는 ‘장將’으로 나오므로 웅진방령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의자왕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는 것은 사세가 위급해지자 의자왕을 사로잡아 나·당연합군에 항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101) 『구당서』 권83 열전 제 33 소정방전.

102)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103)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104) 임용한, 『전쟁과 역사』 삼국편, 혜안, 2001, 269쪽

105) 『삼국사기』 권제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106) 『구당서』 권83 열전 소정방전.

107) 『신당서』 권100 열전 소정방전.

하겠다.¹⁰⁸⁾

이로써 백제는 망하고 백제의 영토는 나·당연합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 백제 부흥 운동

가. 백제 부흥 운동의 배경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라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각처에서 부흥군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왜 각처에서 부흥군이 봉기하고 많은 유민들이 호응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나·당연합군의 약탈과 횡포가 백제 유민들을 봉기하도록 하였다. 전쟁사를 살펴보면 국가 간의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심지어 전쟁 도중에도 약탈이나 횡포를 인정한다.

가-1 이때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 용 등을 사로잡고 곧 군대를 풀어 겁락하게하니 젊고 건장한 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다.¹⁰⁹⁾

가-2 (계백이) 말하기를 “한 나라의 사람으로써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을 대적해야 하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내 처자들이 몰수되어 노비가 될지도 모르는데 살아서 육보는 것은 쾌히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드디어 (처자들) 모두 죽였다.¹¹⁰⁾

위 자료들은 나·당연합군이 백제 유민들을 약탈하고 횡포를 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당연합군에 의한 약탈과 횡포로 인해 백제 유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도로 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민들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왕조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백제 유민과 나·당연합군의 갈등이다.

(당나라) 고종 현경 5년에 이르러 소정방에게 명령하여 10도의 강한 군대와 군선 1만 척을 이끌고 백제를 크게 격파하였다. 이에 그 땅에 부여도독부를 두고 유민들을 불러 모아 중국 관리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였지만 냄새와 맛(생활방식)이 같지 않아 이반한다는 소문이 여러 차례 들렸다.¹¹¹⁾

이 기사에서 보이듯 중국인과 백제 유민들의 취미, 생활풍속이 달랐다. 즉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당시 승자였던 당나라 군사들은 패자인 백제 유민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이러한 갈등이 백제 유민들의

108) 노중국, 『백제멸망후 부흥군의 부흥전쟁연구』, 소화, 1995, 196쪽.

109) 『구당서』 권109 열전 후치상지전.

110) 『삼국사기』 권제47 열전 계백전.

111) 『삼국사기』 권제46 열전 최치원전.

항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대외 관계

(가) 고구려와의 관계

백제의 멸망으로 한반도 내에서의 세력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신라와 당은 고구려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백제부흥운동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구려는 백제부흥운동을 노골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고구려 단독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¹¹²⁾

고구려와 말같이 말하기를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에 있으므로 나라 안이 비어 칠 만하다.” 하고는 군대를 발동하여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¹¹³⁾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도움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에서 신라를 공격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백제부흥운동에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다.

(나) 왜와의 관계

당시 신라는 백제의 압력을 막는 외교적 방책으로 적극적으로 친당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당이 백제에 조서를 내려 신라와 화목하게 지낼 것을 종용하게 할 정도로 나당 관계는 끈끈해졌다. 이런 상황이 백제로서는 매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왜와 우호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백제가 660년 10월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과 더불어 왕자 부여풍의 귀환을 왜에 요청하였다. 왜는 백제 부흥군에 대한 원조를 결정하였다.

장군들에게 각각 명령하여 여러 길로 함께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구름처럼 모이고 우레처럼 움직여 우두머리 악인을 베어 백제를 구원하라¹¹⁴⁾

왜는 661년 9월에 부여풍을 귀환시켰다. 그 후 왜는 군수품을 지원했다. 군수품 지원은 662년 1월과 3월에 걸쳐 두 차례 행해졌다. 1차 때 보낸 것은 화살 10만개, 실 5백 근, 면 1천 근, 포 1천 단, 가죽 1천 장, 종자쌀 3천 곡이었고 2차로 보낸 것은 포 300단이었다.¹¹⁵⁾

112)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37쪽

113) 『삼국사기』 권제42 열전 김유신전 중.

114) 『일본서기』 권26, 660년 10월

11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50쪽

3. 동아시아 최초 국제 해전

가. 백강 전투와 패배

풍왕은 복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초기부터 부흥군을 일으키고 이끌어온 복신의 피살은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¹¹⁶⁾

신라는 백제가 좋은 장수를 죽이자 곧장 백제국으로 들어가 먼저 주류성을 취하려고 하였다.¹¹⁷⁾

이 기사에 보이듯 백제부흥군의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나·당연합군은 주류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에 백제 부흥군은 663년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 부흥군은 왜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왜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수군을 파병한다. 그 규모는 왜군 전선 1천 척과 2만 7천 명의 군사였다.

한편 주류성을 먼저 공격하기로 계획했던 나·당연합군은 공격부대를 수군과 육군으로 편성하고 백강에서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진군하기로 하였다.¹¹⁸⁾

웅진강에서 출발한 당의 수군은 663년 8월 17일에 백강에 도착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당 수군과 왜 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백강 전투이다.

무술에...대당군의 장수들이 전선 170척을 거느리고 와서 백강에 진을 펼쳤다. 무신에 왜의 수군으로 먼저 도달한 자들이 당나라 수군과 더불어 싸웠다. 왜군이 불리하여 물러나자 당나라도 진지를 견고히 하여 지켰다.¹¹⁹⁾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왜군 선발대와 당나라 수군 간에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왜군이 타격이 좀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궤는 백강의 입구에서 왜병을 만나 네 번 싸워 이겼다. 왜선 400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그득하고 바닷물은 모두 붉게 물들었다. 적이 크게 무너졌다.¹²⁰⁾

인궤는 별장 두상, 부여풍과 더불어 수군과 군량선을 거느리고 웅진에서 백강으로 들어가 육군을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가려고 하였다. 백강 입구에서 왜병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겨 그 배 400척을 불태우니 화염은 하늘을 불태우고 바닷물은 모두

116)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257쪽

117) 『일본서기』 권27 천지기 2년 추 8월조.

118) 『구당서』 권 84 열전 유인궤전.

119) 『일본서기』 권27 천지기 2년 추 8월조.

120) 『구당서』 권84 열전 유인궤전.

붙게 되었다.¹²¹⁾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왜의 본군과 당수군 사이에 모두 네 차례의 접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 네 번의 접전에서 제왜연합군은 모두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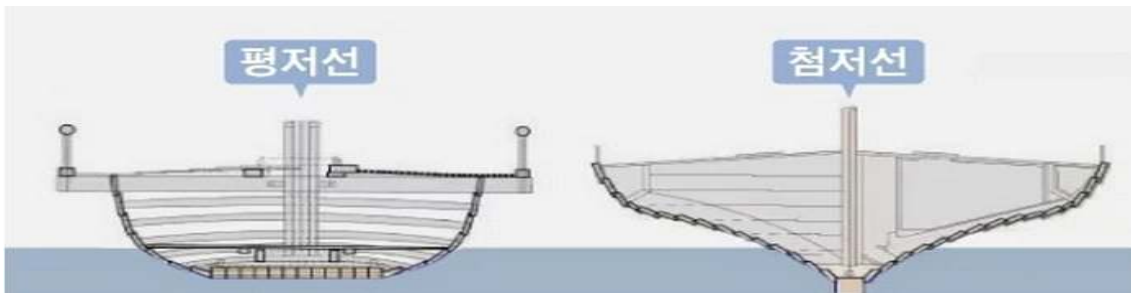
첫 번째, 전선의 수만으로 수군의 전력 차이를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당군의 배는 60명에서 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왜군의 배는 25명에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적으로 매우 우세해보이는 왜군은 당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였다.

“우리가 선수를 친다면 저쪽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대오가 흔들린 일본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나아가 굳건한 진열의 당군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대당이 곧 좌우에서 배를 둘러싸고 싸웠다.¹²²⁾

이 기사로 보았을 때 수적으로 우세한 왜군이 무작정 진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왜군이 무작정 진군하자 당군은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좌우협공 포위 작전을 구사한다.

두 번째, 제왜연합군이 기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기록을 보면 왜군의 배 400척이 불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군이 화공을 사용했다는 말이다. 화공은 풍향과 직결된다. 즉, 제왜연합군은 기상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화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세 번째, 군선의 차이이다. 당시 왜군의 배는 침저선, 당군의 배는 평저선으로 추측된다.



123)

그림에서 보이듯이 침저선은 밑이 뾰족하다. 이런 유형의 배는 거센 파도를 가르기 유리하다. 하지만 백강과 같이 수심이 얕거나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밑이 뾰족하기 때문에 바닥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저선은 연안용이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해 방향 전환이 용이했다. 또한, 당군의 주력함은

121) 『자치통감』권200 당기17 용삭 3년조.

122) 『일본서기』권27. 633년 8월 28일

123) 평저선과 침저선의 차이 'https://blog.naver.com/jcs203/222998248659'.2023.03.13

누선, 몽충, 주가, 유정, 해골선이었다. 누선에는 적선을 쳐서 격파하는 박간拍竿을 성치하여 접근전에 유리하게 고안된 군선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왜군이 패배하였다. 이때 물속으로 떨어져 익사한 자가 많았다. 또한 뱃머리와 고물을 돌릴 수가 없었다.¹²⁴⁾

나. 주류성의 함락과 백제부흥운동의 몰락

백강 입구에서 네 번에 걸친 큰 전투를 벌이는 동안 육군은 곧장 주류성으로 진격하였다.

8월 13일에 두울성에 이르렀다. 백제인이 왜인과 함께 나와 진을 쳤다. 아군은 힘써 싸워 크게 패배시키니 백제인은 왜인과 함께 모두 항복하였다.¹²⁵⁾

수뇌부의 균열과 백강 전투에서 제왜연합군의 대패, 부여풍왕이 고구려로 피신했다는 소식에 백제 부흥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항거할 기력이 사라지게 했다. 그렇게 주류성이 함락되자 주변의 여러 성들도 항복하였다.

663년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 이후 동향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주류성마저 함락되자 많은 백제 유민들은 왜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귀족·지식인층도 왜와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이들이 왜의 율령 체제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성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백강 전투 이후 작은 국가라는 뜻의 왜라는 국호가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뀌었다. 즉, 국가 중앙화되는 과정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풍왕이 있다.

그 배 400척을 불태우니 화염은 하늘을 불태우고 바닷물은 모두 붉게 물들었다. 백제왕 풍은 몸을 빼내 고구려로 달아났다.¹²⁶⁾

신라와 당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백강 전투 승리와 주류성 함락에 신라의 육군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백제의 영역을 신라가 잠식해가자 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백제 고토에 대한 통치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에 백제의 왕자 부여융을 웅진 도독에 임명한다. 즉, 백제인에 의해 간접통치를 실시하여 신라에게 백제 고토를 노리지 말라고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

124) 『일본서기』권27. 663년 8월 28일.

125) 『삼국사기』권42 열전 김유신전 중.

126) 『자치통감』권200 당기17 용삭 3년 9월조.

Ⅲ. 결론

백강 전투는 백제에 국운을 건 백제 부흥 전투였다. 이 전투 전, 후 그 안에서도 여러 나라와 얽혀있는 외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제와 왜의 연합, 신라와 당의 연합, 상황을 지켜보며 실속을 챙기려는 고구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얽혀있는 동아시아 최초 구제 해전이다. 즉, 백강 전투는 7세기 동아시아 외교의 총집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백강 전투는 단 한 줄로만 끝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아시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 백강 전투에 대해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문화사. 2008

서광석. 「백강전투 이후 당조의 대외 외교 인식 변화와 왜, 신라의 대응」. 수선사학회. 2018. 29쪽

조법중.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백제 부흥전쟁’ 관련 검토」. 한국고대회. 2019

서정석. 「부흥운동기 백제의 군사활동과 산성」.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3. 16쪽

김현구. 「심포지움 1: 백제부흥운동과 백강; 백강전쟁과 그 역사적 의의」.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3. 12쪽

남정호. 「의자왕 후기 지배층의 분열과 백제의 멸망」. 백제학회. 2010. 28쪽

역사저널 그날 389회 .KBS. [\[389회\] 역사저널 그날 - KBS . 2023.03.13](#)

EBS 특별기획 통찰-백강전투를 아십니까? .EBS교양. [\(1\)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 백강 전투를 아십니까? #001 - YouTube . 2023.03.13.](#)